독일 초·중등학교 교사의 하루일과

정수정(독일통신원)

독일 교사의 업무 형태는 매우 특별하다. 교사의 업무 시간이 수업시수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 시간을 매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정기적 방학이 다수 있어 타 분야 종사자보다 업무 부담이 적다고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뿐 아니라 수업 전후 수업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고 수업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 시간 외 업무 시간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독일의 교사도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2018년 발표된 괴팅겐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다른 업무 종사자보다 업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독일 교사의 업무 시간 및 내용 등 업무 현황에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사의 업무 시간 및 업무 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교사의 업무 시간은 전체 업무에 대한 시간이 아니라 의무수업시수로 규정된다. 따라서 독일의 교사는 자신이 맡은 수업과 학교 활동을 위한 시간 외에는 반드시 학교에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업과 특별한 활동이 없으면 학교에 있지 않으며 자신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업무 시간이 수업시수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수업준비, 학생평가, 학급운영, 다양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한 교사의 전반적인 업무시간에 대해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수업과 학교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학년회의, 학교회의 등도 정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일 교사의 의무수업시수를 주별로 학교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교사의 의무수업시수는 교육 자치권으로 인해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학교형태와 상황, 교사의 교육 수준, 교육과정 단계 등에 따라 다르다. 의무수업시수는 교사의 연령이 높거나 장애가 있으면 감소한다.

<표 1> 2016/2017 독일 연방 주별 학교형태에 따른 교사의 주당 의무수업시수

주	초등학교	하우푸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중등학교	통합 종합학교	특수학교	직업학교
바덴-뷰르템베르크	28	27	27	25~27	-	27	26~31	25~28
바이에른	28	27	24~28	23~27	-	-	26	23~27
베를린	28	-	-	26	-	26~28	27	25~26
브란덴부르크	27	-	-	25	25	25~27	25	25
브레멘	27~28	-	-	25~27	25~27	25~27	27	25
함부르크	27.9	-	-	21~26	-	21.4~26	26.9	21~25.1
헤센	28~29	26~27	26~27	25~26	-	25~26	27~28	24~25
메켈렌부르크-포아폼메른	27~27.5	-	-	23~27	26~27	23~27	27	24~30
니더 작센	28	27.5	26.5	23.5	25.5	24.5	26.5	24.5~25.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8	28	28	25.5	25.5	25.5	27.5	25.5
라인란트-팔즈	27.8	27	27	24	27	24~27	27	24
잘란트	28~28.5	-	-	25~26	27	25~27	27	25.5~31
작센	28	-	-	26	26	-	25~32	26~28
작센-안할트	27	-	-	25	25	25	25	25~27
슬레스빅홀슈타인	28	-	27	25.5~27	27	27	27	25.5~28
튜링엔	27	-	-	23~26	26	23~27	25	23~27

주: 김나지움 외 중등학교인 하우푸트슐레와 레알슐레를 통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통합 중등학교나 통합 종합학교를 운영하는 주의 경우 하우푸트슐레와 레알슐레를 완전히 폐지한 주가 있으며, 작센주는 종합학교를 운영하지 않음. 하우푸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으로 분리된 중등학교 체제를 운영하는 주 가운데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중등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주도 있음.

출처: 주 교육부 장관회(KMK)(2016). Übersicht über die Pflichtstunden der Lehrkräfte an allgemeinbildenden und beruflichen Schulen Ermäßigungen für bestimmte Altersgruppender Voll- bzw. Teilzeitlehrkräfte Besondere Arbeitszeitmodelle Schuljahr 2016/2017. 재구성

주 교육부 장관회의 교사교육 표준에 따르면 교사는 첫째, 가르치는 것과 학습 분야의 전문가이며, 둘째, 수업과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을 훈육할 책임이 있다. 셋째, 교사는 수업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학생의 진로를 돕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

의 능력을 올바로 평가하고 적합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교사는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학문적 지식을 교직 수행에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교사는 학습을 지원하는 학교 문화와 동기를 고취할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우수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수와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조직하며 해당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 또한, 개별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진로를 지원해야 하고, 학생의 훈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훈육이나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수준 높은 교육학적, 심리학적, 진단적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계속해서 개발할 필요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는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내/외부 학교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교사의 업무는 수업 외에도 수업을 위한 준비, 학생 평가, 훈육, 진로지원, 학생과 학부모 상담, 학생의 학업과 생활의 지속적 관리, 학교 개발 참여, 자기 계발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현재 독일은 이주 배경이 있는 학생이 증가하고 장애/비장애 학생의 포용교육(Inclusive Education)이 확대되어 학생 간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있어 교사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 교육노조와 막스-트레거 재단(Max-Traeger-Stiftung)의 위임을 받아 괴팅겐 대학에서 시행한 교사 업무시간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는 주당 정해진 업무시간보다 평균 1시간 40분 더 일하며, 대부분 교사가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다. 독일은 교사의 업무시간이 의무수업시수로 규정되고, 이외 업무시간은 교사의 책임감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전체 업무시간을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사 14~19%는 책임감이 강해 과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일제 교사 가운데 동기가 높고 의무수업시수가 많은 경우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건강에 위험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수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일제 교사 가운데 업무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의무수업시수를 줄여 부분제(part time)로 근무하는 교사가 있으나, 부분제 교사도 실제 업무시간은 전일제 교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수의 교사가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우수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의무수업시수를 감소하여 부분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교사 업무 관련 교육정책

교사가 학교 운영을 위한 특별 임무를 수행하거나 학교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면 교사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지역과 단위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수업시수를 감소해 주고 있다. 함부르크와 베를린주 등 일부 주의 경우, 사회소외계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급 크기를 축소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잘란트 주 교육부는 학생 개별지원과 이주민 학생의 통합 및 장애/비장애 학생의 포용교육 확대 등으로 학생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자 교사의 의무수업시수를 28.5시간에서 28시간으로 감소하였다. 독일의 전체주가 고령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의무수업시수를 감소시키고 있는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55세 초과 교사는 1시간, 60세 초과 교사는 3시간 주당 의무수업시수가 감소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과 일 병행을 돕기 위해 안식년 모델 교사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신이 정한 일정 기간 부분제 근로의 임금을 받으면서 해당 기간 중 1년은 안식년으로, 나머지 해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모델이다. 안식년을 갖기 위한 부분제 근로 기간 및 이에 따라 받는 임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사의 안식년 모델

안식년 모델	임금	전일제 근무	안식년
3년	2/3	2년	1년
4년	3/4	3년	1년
5년	4/5	4년	1년
6년	5/6	5년	1년
7년	6/7	6년	1년

출처: Die GEW im Stadtverband Solingen(2017).

교사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대부분 주는 학교 내·외부에서 교사가 수월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위한 연구소 및 아카데미, 지원팀을 두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는 교사 연수를 위해 지역 학교청에 전체 53개의 역량팀(Kompetenzteam)을 운영한다. 학교청의 역량팀은 단위 학교의 교사 연수 계획을 지원하고, 교과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디어 교육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개별지원, 통합, 가치교육, 직업교육으로 이행 등의 학제적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역량팀의 강사는 학교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초대되어 내부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개인 교사와 교사 연구 공동체의 연수를 돕고 있다. 역량팀이 제공하는 학교 내부 프로그램은 같은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거나 여러 학교 교사들을 모아 실시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모든 단위학교가 학교회의의 동의를 얻어 한 해 2일을 '교육의 날(Pädagogische Tag)'로 정하고 교사 전원을 위한 학교 내부 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의 날 가운데 1일은 주 교육부 산하 학교청과 교육 주제와 내용을 협의하여 실시한다. 교육의 날 학생들은 학교에서 준비한 과제를 가정에서 학습하고 있다.

3. 특징 및 시사점

독일의 경우 교사의 업무 시간을 의무수업시수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교사의 업무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 평가 및 관리, 훈육, 학생, 학부모 상담, 학생 진로 지원 등 매우 광범위하며 실제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 외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독일은 교사의 전반적 업무에 대한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교사의 업무시간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교사가 수업준비나 학교운영을 위해 독일 정규 공무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교사가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교사 업무가 수월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고 교사 대부분이 수업 준비와 수업 후 부대 작업을 일반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에 하고 있어 이중의 부담을 겪고 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사가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고령일 경우 등에 의무수업시수를 감소해주고 일부 주는 교사가 원할 경우 안식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사가 자기 계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업무 부담 감소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의무수업시수로 교사의 업무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한, 교사의 수업 외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이 분명하지 않고 교사의 책임감 및 동기에 따라 업무 내용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업무에 대한 부담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bildungsklick.de(2016.9.21.). Bildungsministerium entlastet Grundschulen.

https://bildungsklick.de/schule/meldung/bildungsministerium-entlastet-grundschulen/

- Die GEW im Stadtverband Solingen(2017.7.2.). Sabbatjahr mit neuen flexiblen Regelungen
  https://solingen.gew-nrw.de/neuigkeitensolingen/news/sabbatjahr-mit-neuen-flexiblen-regelungen-1.html
- FOCUS Online(2018.“Es muss mehr Luft ins System“. Neue Studie warnt vor Überlastung: So viel müssen Lehrer wirklich arbeiten.
  https://www.focus.de/familie/schule/es-muss-mehr-luft-ins-system-neue-studie-warnt-vor-ueberlastung-so-viel-arbeiten-lehrer-wirklich_id_8391495.html
- 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12). Allgemeine Dienstordnung für Lehrerinnen und Lehrer, Schulleiterinnen und Schulleiter an öffentlichen Schulen.
  https://www.schulministerium.nrw.de/docs/Recht/Dienstrecht/Grundlegend/ADO.pdf
- 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Staatliche Fortbildung.
  http://www.lehrerfortbildung.schulministerium.nrw.de/Fortbildung/index.html
- Sekretariat der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KMK)(2004). Standards für die Lehrerbildung Bildungswissenschaften.
  http://www.kmk.org/fileadmin/veroeffentlichungen_beschluesse/2004/2004_12_16-Standards-Lehrerbildung.pdf
-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KMK)(2016). Übersicht über die Pflichtstunden der Lehrkräfte an allgemeinbildenden und beruflichen Schulen Ermäßigungen für bestimmte Altersgruppender Voll- bzw. Teilzeitlehrkräfte Besondere Arbeitszeitmodelle Schuljahr 2016/2017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pdf/Statistik/Pflichtstunden_der_Lehrer_2016.pdf
- ZEIT ONLINE(2018.1.29.).Studie: Lehrergewerkschaft beklagt überlange Arbeitszeit.
  https://www.zeit.de/gesellschaft/schule/2018-01/studie-lehrer-arbeitszeit-lehrergewerkschaft-gew